

# 『群山二友圖帖』의 제작 경위와 의미\*

황수정(조선대)

## 〈목 차〉

- |                           |                    |
|---------------------------|--------------------|
| 1. 머리말                    | 1) 시서화의 융합         |
| 2.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 및 그 과정 | 2) 전란 속 만남, 知淸의 기록 |
| 3. 『군산이우도첩』의 문예적 의미       | 3) 지식인 공동의 합작물     |
|                           | 4. 맺음말             |

## 1. 머리말

건국대박물관 소장 『군산이우도첩』<sup>1)</sup>은 조선 중기 화가 조영(趙嶸,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908)

(본고는 2020년 11월 7일(토) 제61회 한국언어문화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화상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1) 필자는 2020년 1월 9일(목) 오전에 『군산이우도첩』의 소장처인 건국대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품을 열람하였다. 당시 박물관에서는 2층 전시실에 있던 〈군산이우도〉는 수장고에 보관 중이었다. 연구를 위해 직접 열람하고 촬영하도록 도와주신 박제광

1572~1606)과 학자 김주(金軾, 1564~1636)의<sup>2)</sup> 우정을 기록한 시서화첩이다. <군산이우도>라는 조영의 그림을 중심으로 그의 제화시, 김주의 서문(序文), 권필의 제화시와 증별시, 박경립의 발문(跋文), 성로의 시 2편으로 구성되었다.<sup>3)</sup> 이 작품집은 임진왜란의 시기인 1593년 피란의 장소인 고군산도(지금의 군산 선유도)에서<sup>4)</sup> 만남을 기록한 것이다. 두 선비가 만나게 되면서 급박한 시기에 위안이 되었던 지음(知音)의 망년지교(忘年之交)를 나누었던 내용이다.

본고는 제화시와 그림이 함께 존재하며 시서화의 예술미와 문학성을 갖춘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그 문예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의 시서화첩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sup>5)</sup> 주로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학예실장님과 강정인 학예사님께 감사드린다.

- 2) 조영의 자는 士安, 호는 楊湖, 楊州人이다. 조선 초기의 문신 조말생의 6대손이자 율곡 이이의 생질이다. 조영은 임진왜란 중에 서해의 군산도로 피신을 하였다. 군산도는 천혜의 경관으로 유명한 선유도가 있는 고군산군도로써 현재는 전라북도 군산시에 속하며 군산 남서쪽 약 50km에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육로로 연결되었다. 오세창, 『국역근역서화정』, 시공사, 2007, 464~465면 참조, 김주의 자는 志遠, 호는 雲巖, 海平人이다. 1605년 증광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1624년(인조2) 61세의 나이로 대과에 합격하였다. 1625년 예조 정랑이 되었다.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三 行蹟, 국립중앙도서관: 『谿谷集』 卷12 <故禮曹正郎金公墓碣銘>, 韓國文集叢刊 92輯: 『기인』 별집 권25 <漢陽趙公節婦成氏雙墓銘> 참조.
- 3) <군산이우도>는 서울에 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였다. 그런데 제1회 서울시민 소장문화재전(1985.12.27~1986.01.20)에 출품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 유물은 골동품 중개상을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에 그 유물에 담긴 가치를 인정한 건국대학교 박물관이 구입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김상엽, 『전란 중에 이루어진 선비들의 운치 있는 만남 <군산이우도>』(건국대에 숨겨진 유물이야기1, 건국대박물관 인문학 강좌) 2014.3.6.
- 4) “선유도는 신시도, 무녀도, 방축도 등과 더불어 고군산군도를 이루는 중심 섬이다. 본래 군산도라 불렸으나 섬의 북단 해발 100여미터의 봉 정상형의 형태가 마치 두 신선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여 선유도라 불리게 되었다. 선유도는 고군산군도의 중심으로 서해의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수군의 본부로 기지역할을 했던 선유도는 수군절제사가 통제하기도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승리 후 선유도에서 열 하루 동안 머물며 전열을 재 정비하는 등 함선의 정박기지로 해상요지였다.” 군산시청, 홈페이지 참조.

한 서첩 또는 화첩의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군산이우도첩』은 두 인물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 문사(文士)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시서화첩이라는 특징이 있다.

『군산이우도첩』 관련 기존 연구는 김상엽의 『조영의 〈군산이우도〉 연구』와 황수정의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논문이 있다. 또한 박영철의 「〈군산이우도〉와 군산도」라는 지명 관련한 연구가 있다.<sup>6)</sup>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군산이우도〉 그림 관련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서화첩으로 『군산이우도첩』의 문예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군산이우도첩』에 대한 연구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이다. 조선 중기 시서화첩으로

- 
- 5) 최근 시서화첩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형술, 「〈海嶽傳神帖〉에 나타난 詩書 교섭의 새 양상」, 『韓國漢文學研究』 45, 한국한문학회 2010; 윤지훈, 「동해(東海) 조종진(趙琮鎭)의 서예취미(書藝趣味)와 첩(帖)에 대한 일고(一考)」, 44, 『東方漢文學』, 동방한문학회, 2010; 이희원, 「傳 李慶胤 筆 《山水人物帖》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20; 金健利, 「豹菴의 《松都紀行帖》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박선희, 「정선의 금강산화첩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2017; 채순홍, 「懷素 『自敘帖』의 美學思想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10; 오진구, 「손과정과 회소의 서체미 비교연구 : 서보와 자서첩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논문, 2009; 장루비, 「《淑明宸翰帖》의 書體 研究」,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김현민, 「古藍 田琦의 書藝에 關한 研究 : 《杜堂尺素》帖을 中心으로」,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5; 김미애, 「표암 강세황의 산수화 연구: 〈풍악 장유첩(楓嶽壯遊帖)〉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일선, 「檀園 金弘道の 풍속화 연구: 풍속화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2006; 임정연, 「조선시대 서간체의 조형미 연구: 『숙명신한첩』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20; 김가희, 「鄭澈과 李春躋 家門의 繪畫 酬應 研究: 《西園帖》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김은경, 「檀園 金弘道の 風俗畫에 關한 研究: 風俗畫帖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08; 조영인, 「김홍도의 풍속화첩을 통한 '오늘의 풍속화' 그리기 지도방법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05; 안은순, 「檀園 金弘道の 繪畫世界 研究: 金剛山圖畫帖을 中心으로」, 수원대학교 석사논문, 2017; 이해경, 「朝鮮後期 柳相龍의 《放鶴第二山房莊》 書畫帖 研究」, 덕성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3.
- 6)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60면 각주 7번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그림과 제화시, 그리고 서체를 고찰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중기 화단을 문헌상으로 검토해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이후 시기에 비해, 회화 감상에 관한 글들이 대부분 시(詩)의 형식을 띠고 있고 題跋·序·文·雜誌 등 산문 형식은 매우 적다는 점이다.<sup>7)</sup> 이러한 측면에서도 <군산이우도>는 제화시를 비롯해서 발문과 서문을 갖춘 하나의 첩(帖) 형태로 존재하여 그 연구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군산이우도첩』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제작 경위와 의미를 구명하는 것이 반드시 선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군산이우도첩』은 그림 1편과 함께 시 5편, 서문 1편, 발문 1편으로 시서화가 조화를 이룬 작품집이다. 이에 대한 제작 경위와 의미를 밝히는 것은 향후 『군산이우도첩』의 학술적 가치를 드러내는 일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로써 『군산이우도첩』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군산이우도첩』을 구성한 그림과 시서발문을 중심 자료로 삼았고, <군산이우도> 관련 기타 시문과 기문 등을 참고 자료로 하였다.

## 2.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 및 그 과정

『군산이우도첩』은 조선 중기 임진왜란인 전란의 시기 중에 제작이 시작된 작품집이다. 먼저 『군산이우도첩』의 그 제작 경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군산이우도첩』의 김주 서문을 통해서 <군산이우도> 그림의 자세한 제작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

7) 정혜린, 「조선 중기 회화관 연구: 절파산수화(浙派山水畫)와 시화합일(詩畫合一)의 관계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6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171면.

나와 사안(士安)이 군산(群山)에서 친구가 된 것이 계사년(1593년) 봄이었다. 서울과 시골이[영한의 천리가] 난리로 하룻밤 사이에 병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책상을 마주대하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며 간곡하고도 자상하기가 간담이 고검(古劍)에 비추고 교분이 아교에 던져진 것 같았다. 누가 고검인이 옛날에 말하던 관중과 포숙아가 지금의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말한다고 하겠는가? 내가 사안(士安)에게 말하길, 나와 그대는 고향을 떠나 이곳에 기숙(寄宿)하면서 우정의 돈독함을 얻었습니다. 어찌 영원히 잊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대가 시화(詩畫)에 능하니 청컨대 그림을 그리고 또 시를 지어 두 개의 시화첩을 만들어 각각 그 하나씩을 간직하면서 죽을 때까지 감상하면 어떻겠습니까? 사안이 이에 기꺼이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군산이우도'라 이름 하였다. ……<sup>8)</sup>

이러한 김주의 서문을 통해 보면, 두 사람은 임진난의 피란 중에 만나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계사년(1593) 봄은 온 국토가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버렸던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기간에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우정을 나누었던 바를 그림으로 남겨서 영원히 간직하자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가장 가까워서 서로를 의지하며 영원한 우정을 기억했던 만남에 대한 기록이다. '간담이 고검을 비춘다'는 뜻은 간과 쓸개를 모두 보일 정도의 속마음을 터놓는 관계를 말한 것이다. 마치 고검이 칼집 속에서도 그 빛을 감추지 못하는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숨김없이 터놓는 친밀한 사이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두 사람의 우정을 관중과 포숙아와의 우의로 연결하고 있다. 전란의 급박한 위기 속에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서로에게 정신적 위안이 되었던 바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8)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二, 「群山二友圖序」, “余與士安, 友於群山, 在癸巳春也. 嶺漢千里, 傾蓋一夕亂離瘼矣. …… 自去歲迄今年, 對一榻, 臥一被, 切切焉, 惻惻焉. 肝膽照於古劍, 交分投於膠漆. 孰謂古今人之不相及, 古稱管鮑而今有我輩也. 余謂士安曰, 吾與子, 離於鄉而寄於此, 得而友之情亦篤焉. 盍思所以永圖不忘者乎. 子能於詩畫, 請圖而又詩, 作帖爲二, 各珍其一, 以沒齒之玩如何. 士安於是欣然援筆以作之, 名曰 群山二友圖. ……”

김주는 조영에게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를 시화(詩畵)로 남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조영이 기꺼이 응하여 <군산이우도>라는 그림과 그에 대한 시(詩) <군산이우도시>를 남기게 되었다. 여기에 김주가 서문을 붙임으로 인하여 그림과 그에 대한 제화시, 그리고 서문이 완성될 수 있었다. 이 서문은 병신년(1596)의 기록이다.

한편 김주는 당대 이미 최고의 시인이었던 석주 권필(1569~1612)에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제화시를 부탁하였다. 이들 두 사람과의 인연이 이미 각별하였던 권필 또한 기꺼이 <군산이우도>에 대한 제화시로 <군산이우도> 화폭의 묘사를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는 <제군산이우도>라는 26구의 장편고시인데 두 사람의 극적인 만남과 풍모를 그려냈다.<sup>9)</sup> 또한 권필은 후에 김주와의 이별을 앞두고 <제군산이우도>를 짓게 된 경위를 기록하였다. 그 기록을 보면, 권필의 입장에서 두 사람의 인연에 동참하게 된 계기를 알 수 있다.

내가 김군 지원(金君志遠)을 알게 된 지 10년에 가깝다. 처사(處士) 성씨(成氏)의 집에서 김군을 처음 만났는데, 성씨의 사위 조군 사안(趙君士安)도 좋은 선비이며 김군과 정이 매우 친밀하여 마치 형제 사이와 같았다. 하루는 김군이 군산이우도(群山二友圖)란 그림 두루마리[畫卷] 하나를 꺼내 보여 주었다. 이우(二友)는 김군과 사안이고 군산(群山)은 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이다. 그림은 조군이 손수 그린 것이고, 김군과 조군의 제서(題序)가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한마디 글을 적어 달라고 하였다. 나는 봉우의 도리가 없어진 것을 탄식한 지 오래였는데, 지금에 봉우의 도리를 보았고 게다가 내가 종유(從遊)하는 사람들이었다. 비록 이 그림 속에 참여할 수는 없었으나 그 후미(後尾)에 내 이름을 거는 것도 다행이기에 장구(長句)의 시를 읊어 두루마리 말미에 붙였다. 이로부터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었으나 대체로 불과 수십, 백 리 남짓한 거리에 살던 터라 때때로 서로 찾아가서 울적한 회포를 풀 수 있었다.<sup>10)</sup>

9)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면)에서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다.

10) 권필, 『石洲集』 卷之一, <送金進士嶽南歸星州 并引>, “余識金君志遠近十年 始見於處士

위 내용을 통해 보면, 김주에 대한 권필의 신뢰를 알 수 있다. 10년 세월을 두고 인연을 이어왔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김주와 조영, 두 사람의 소중한 만남에 대한 기록에 제화시로 동참할 수 있음에 기쁨을 드러냈다. 또한 김주가 권필에게 제화시를 부탁하는 과정을 남김으로써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 및 그 과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였다. 즉 그림이 완성되면서 김주의 서문과 조영의 시가 각각 그 뒷부분에 이어지고, 그 후에 권필의 <제군산이우도> 제화시가 이루어진 바를 알 수 있다. 김주와 조영의 제서(題序)라 하여 조영의 제화시와 김주의 서문 이후에 자신은 제화시으로써 두 사람 우의의 형상화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비록 그림 속에 세 사람이 함께 하지는 못하였어도, 그 기록 속에 제화시로 참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실제 『군산이우도첩』에는 그림 뒤에 서문, 조영의 제화시, 그리고 박경립의 발문이 이어지고, 그 뒤로 권필의 제화시인 <제군산이우도>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어서 권필의 <송김진사주남귀성주(送金進士轅南歸星州)>라는 증별시가 있다. 여기에 권필은 정미년(1607)의 작품임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박경립의 발문 내용에서 보이는 제작 경위를 살펴볼 수 있다. 박경립은 발문의 완성 시기를 무술년(1598) 초겨울로 기록하였다.<sup>11)</sup>

나의 벗 조군이 그림을 잘 그렸다. 하루는 수묵(水墨)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이면서 말하길, <군산이우도>라 하였다. 나는 그 필적의 신묘함을 사랑하여 두세 번 펼쳐서 감상한 뒤에 이윽고 그 그림을 그린 까닭과 (군산이우도라고 이름 지은) 뜻을 물으니, 곧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를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그 산천이

成氏之居 成氏之甥曰趙君士安者 亦佳士 與君情好甚密 有若天倫焉 一日 君出畫卷曰群山二友圖 蓋二友者 君與士安也 群山者 二君始會之地也 畫則趙君手筆 而二君俱有題序 且命余爲一言 余竊歎朋友道減絕久矣 乃特見於今 而又在於吾所從遊者 雖未能參入畫中 得掛名於其後 亦幸矣 乃賦長句詩 以附卷尾 自是雖或聚或散 而率不過數十百里之間 得以時時經過以瀉壹鬱。”

11) 『群山二友圖帖』, <群山二友圖跋>의 낙관 기록, 萬曆孟冬戊戌朴敬立書.

평원하고 기상의 우뚝함을 보니, 군산의 빼어난 경치와 똑 같았다.……12)

이 발문은 조영이 박경립<sup>13)</sup>에게 부탁한 것을 알 수 있다. 박경립은 신묘한 필적으로 표현된 조영의 <군산이우도>에 대한 감탄을 드러냈고, 그 제작 경위를 조영에게 묻는 것으로 발문의 서두를 시작하고 있다. 이후에도 박경립은 자신의 발문에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감상한 <군산이우도>를 비교적 상세하게 표현하였고, 조영과 김주의 극적인 만남과 인연을 기록하였다.

『군산이우도첩』 제일 말미에는 조영의 장인인 성로가 쓴 김주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담은 증별시 두 편이 있다. 이 작품에서 성로는 자신의 증별시 가유년(1609)의 작품임을 기록하였다. 이렇듯 그림 <군산이우도>를 중심으로 한 『군산이우도첩』을 구성한 시서제발을 통해 제작 경위 및 과정, 그 제작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즉 조영과 김주의 만남은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의 피란의 장소인 고군산도(지금의 선유도)였고, 김주의 서문은 1596년의 기록이다. 권필의 증별시 병인(并引)을 통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참여한 『군산이우도첩』의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권필 자신의 작품인 증별시는 정미년(1607)의 작품으로 기록하였다.<sup>14)</sup>

12) 박경립, 『雲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群山二友圖跋>, “吾友趙君, 善於畫, 一日持所畫水墨帖一本來示余曰, 群山二友圖, 余愛其筆迹神妙, 二三披玩之餘, 因問其作畫之由, 命名之義, 則令人羨慕, 而尤不能自己焉, 觀其山川平遠, 氣象萬千, 宜其群山之勝如此也, ……”

13) 朴敬立의 생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 없다. 鷄林人 朴敬立(1571년)은 辛未生으로 文科 宣祖38年(1605) 增廣試 丙科에 급제한 인물로 보인다.

14) 『군산이우도첩』이 완성되기까지 약 13년의 기록은 필자가 모두 『군산이우도첩』을 직접 확인 한 후, 각각의 작품 말미에 기록된 년도를 파악함으로써 밝힐 수 있었다. 이를 간단하게 작품 제작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사년(1593)에 두 사람의 만남 후 : 병신년(1596)년 김주의 서문-> 같은 시기, 조영의 <군산이우도>와 <군산이우도시> 제작 추정-> 무술년(1598)에 박경립 발문-> 권필의 <제군산이우도> 작품 제작 시기 기록없음-> 정미년(1607) 권필의 증별시-> 가유년(1609) 석전 성로의 증별시 두 편으로 『군산이우도첩』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김주의

『군산이우도첩』은 1593년의 극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을 바탕으로 1596년의 서문의 기록과 조영의 그림과 시로 1차 첩(帖)을 이루었다. 여기에 이어서 1598년 박경립의 발문과 권필의 제화시가 각각 조영과 김주가 제안하여 완성, 합본한 것이다. 1607년에 권필의 증별시, 끝으로 1609년 조영의 장인 성로의 증별시 2편으로 마무리되었다. 『군산이우도첩』은 전란 중의 극적인 만남을 시작으로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며 제작되었고, 10년의 세월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작품집임을 알 수 있다.

### 3. 『군산이우도첩』의 문예적 의미

#### 1) 시서화의 융합

시서화는 삼절(三絶)의 합일된 정신인 형상언어(形象言語)로서 이성과 감성을 겸비한 철학과 예술, 삶과 배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의 태도가 들어 있다.<sup>15)</sup> 전통적 가치에서 시서화는 일률(一律)의 의미를 담고 있다. 『군산이우도첩』에서 조영의 <군산이우도>는 열은 채색의 산수인물화로 자연 속에 어우러진 두 사람의 모습이 담박하게 묘사되어 있다. 뒤이어 김주의 <군산이우도서>는 해서(楷書)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발문 1편과 시 5편으로 구성되어

---

『운암선생문집』에는 성로의 증별시 두 편은 『운암선생문집』 卷之四 부록 『군산이우도첩』 항목에 위의 작품들과 나란히 수록되지 않고 뒷부분에 贈遺편에 두 편의 증별시가 실려 있다. 그 외에도 김주의 문집에는 허목의 『군산이우도기』가 문집 卷四 부록 편, 『군산이우도첩』 항목에 함께 들어있다. 『군산이우도기』는 조영의 아들 조성후의 부탁에 의해서 허목이 작성한 것이다. 이는 『미수기언』에서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원년(1675)의 때이다.

15) 신현경, 『시서화 삼절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서설』, 『東洋文化研究』 第6輯,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0, 83면.

있다. 즉 조영의 시 〈군산이우도시〉는 초서(草書)로, 권필의 〈제군산이우도〉, 박경립의 〈군산이우도발〉, 조영의 장인인 성로의 증별시 2편<sup>16)</sup>은 각각 행초(行草)로 기록되었다. 이로써 조영과 김주의 망년지교(忘年之交), 지음(知音)의 우의를 남기기 위한 시서화 융합의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군산이우도첩』의 구성표를 통해 그 규모와 작품의 형태를 정리할 수 있다.

〈표1〉 『군산이우도첩』의 구성표<sup>17)</sup>

작품	그림 형식 / 서체	작가	생물연대	작품명	제작 시기
圖	絹本彩色	趙嶽	1572~1606	群山二友圖	미기록
序	楷書	金轅	1564~1636	群山二友圖序	丙申 (1596)
題畫詩	草書	趙嶽	1572~1606	群山二友圖詩	미기록
跋	行草	朴敬立	1571~?	群山二友圖跋	戊戌 (1598)
題畫詩	"	權譚	1569~1612	題群山二友圖	미기록
贈別詩	"	"	"	贈別詩	丁未 (1607)
贈別詩	"	成輅	1550~1615	贈別詩 1	己酉 (1609)
贈別詩	"	"	"	贈別詩 2	己酉 (1609)

위 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군산이우도첩』은 화첩(畫帖)이나 서첩(書帖)에만 머물지 않고 그림과 글씨, 그리고 시와 서발문이 어우러진 시서화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우도〉는 비단에 산과 바다, 두 인물이 어우러진 얇은 채색화이다. 그림의 면모를 밝힌 박경립의 발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문예적 풍모를 알 수 있다.

16) 성로의 증별시는 〈南翁金志遠還鄉〉과 〈臨江話別〉이다.

17) 아래 표는 『군산이우도첩』을 직접 확인하고 정리하였다. 『군산이우도첩』의 시서발의 낙관 기록을 통해 제작시기를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에 소나무와 대나무가 있었는데, 소나무 한 그루에 대나무 몇 무더기가 있었다. 소나무는 오래 되어 구부정하고, 어린 대나무가 듬성듬성 있었다. 그 서리를 엽신여기는 줄기와 눈을 알보는 자태가 모두 사실에 가까웠다. 그 실제 있는 것을 그림에 그린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경계한 기상을 빌려서 세한의 뜻을 붙인 것인가? 가운데 두 사람이 오건을 쓰고 소복하고 송죽 가운데서 술잔을 마주 잡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두 친구[二友]라고 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조군(趙君) 자신일, 다른 한 사람은 영남 성산(星山: 星州) 사람인 김군이다.<sup>18)</sup>

박경립은 자신의 발문에서 <군산이우도>를 묘사하고 있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무더기로 있고, 오래된 소나무의 구부정한 모습, 어린 대나무의 듬성듬성하게 묘사한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두 사람이 오건(烏巾)을 쓰고 술잔을 마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 모습은 두 사람의 강개한 기상과 세한의 뜻인가를 묻고 있다.

<군산이우도>는 산수 자연 속, 특히 바다로 보이는 물가의 바위 언덕에 비스듬히 길게 자란 커다란 소나무 아래<sup>19)</sup> 두 사람이 마주 앉아있다. 그림은 전반적으로 여백의미를 느낄 수 있는 담박한 미감을 보여준다. 배경이 되는 원경의 산은 선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강함과 안온함을 동시에 담아냈다. 옆모습의 술을 권하는 듯한 이는 조영이다. 여기에 마주앉아서



<도판1> <군산이우도> 33×45.5cm  
건국대박물관 소장 / 필자 촬영(2020.01.09.)

18) 박경립, 『雲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群山二友圖跋>, “其中有松有竹焉, 松一竹數叢, 松偃以老, 竹穉而疎, 其凌霜之幹, 傲雪之姿, 箇箇逼真焉, 其真有之, 而并畫之耶, 抑假此添二君耿介之氣象, 而寓意於歲寒耶. 中有兩人烏巾素服, 對酌於松篁之間者, 卽所謂二友也. 其一趙君自謂也, 其一卽嶺南星山之金君也.”

19) 김상엽, 『기역의 풍경』, 쿠투, 2016, 308면 참조. 김상엽은 여기서 소나무의 진한 먹으로 표현된 웅이와 먹색의 대비가 강한 물가의 바위 등은 조선 초기 명으로부터 들어와 조선 중기 화단에 큰 영향을 준 浙派 화풍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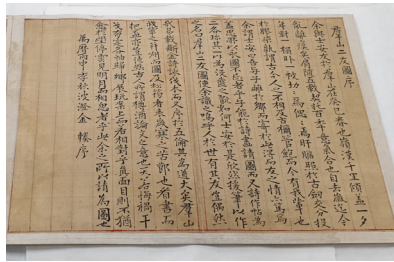
책을 펼치고 있는 이는 김주이다.

두 사람의 당시 교류의 모습과 꺾어진 시대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였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방건(方巾)을 쓴 모습이다. 이는 조선시대 사인들이 편복에 쓰던 건으로 일상 복장용이다. 이렇듯 〈군산이우도〉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주변 산과 물, 그리고 주로 소나무, 대나무의 어울림을 배경으로 절제와 여백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은 김주의 서문에 나타난 그림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군산은 우리가 함께 살았던 고을이다. 소나무와 대나무를 그린 것은 세한(歲寒)의 고통을 나타낸 것이다. 책을 보면서 술잔을 잡고 있으니, 역시 어찌 다만 옛 사람이 말한 술잔을 잡고 문장을 논하는 뜻만이겠는가?20)

그림 바로 뒤이어 김주의 〈군산이우도서〉는 그의 학자적 인품을 반영하듯 반듯한 해서체로 『군산이우도첩』 2면에 쓰여 있다.21) 내용은 〈군산이우도〉 제작 배경과 작품을 남기게 된 의미가 중심을 이룬다. 그 뒷장에 조영의 제화시인 〈군산이우도시〉가 있다. 조영의 성품이 담긴 활달한 초서체로 모두 3면에 걸쳐 쓰여 있다. 그림의 의미와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서 조영의 초서체를 통해 그의 거침없고 호방한 서체의미를 함께 볼 수 있다.

김주 또한 서문을 직접 작성하여 두 사람 우정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평소 김주의 학술적 면모를 잘 알 수 있듯이 세밀하게 해서체로 기록한 서문이다. 이렇듯 두 사람의 그림과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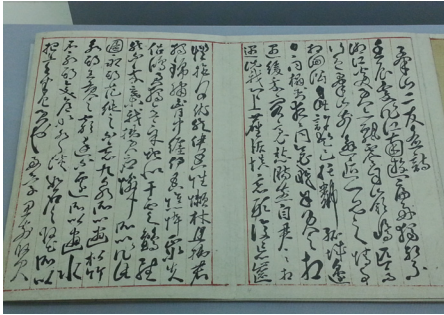


<도판2> 김주의 〈군산이우도서〉 / 필자 촬영

20)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二, 〈군산이우도서〉, “群山, 我輩之并州, 而圖及松筠者, 表歲寒之苦節也. 看書而把杯, 亦豈徒然古人所謂樽酒論文之意也.”

21) 장황(粧潢)으로 그림과 서문은 비단이고, 뒤부터 한지 배접이 잘 되어 있다. 모두 18면으로 구성되었다. 본래 2면이었던 것이 1면으로 배접된 상태이다.

그리고 서체의 특징을 통해서 시서화가 융합된 『군산이우도첩』의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박경립의 <군산이우도발>이 이어진다. 행초의 글씨로 조영과 김주와의 인연과 두 사람 우의에 대한 감복의 내용이다. 박경립의 서체도 행초로 이어졌는데 서체의 독창성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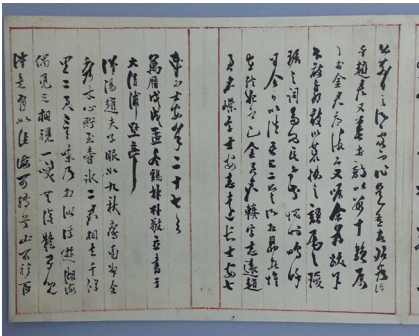


<도판3> 조영의 <군산이우도시> 부분 / 필자 촬영

그 뒤를 이어서 권필의 제화시인 <제군산이우도>와 그의 증별시가 있다. 모두 행초의 글씨로 필법이 활발하지는 않다. 그러나 학자의 간찰 글씨에서 보이는 유려함이 있다. <제군산이우도>는 권필의 제화시로 권필과 김주와의 인연, 조영과 김주와의 우정의 깊이 등이 서사적 구조로 잘 표출되어 있다.<sup>22)</sup> 권필의 <증별시>에서는 조영이 세상을 떠난 후, 김주도 고향으로 가게 되면서 그와의 이별에 대한 아쉬움 등이 잘 드러나 있다. 끝으로 시 두 편은 조영의 장인인 성로의 증별시 2편이다. 서체는 역시 행초인데 자간과 장법이 매우 조밀하다.

이로써 『군산이우도첩』에서 화가 조영의 그림은 절제와 여백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의 제화시는 활달한 기상과 분방한 필법을 구사한 초서체이다. 학자 김주의 서문은 해서체, 당대 최고 시인인 권필 제화시, 그리고 두 사람의 친우인 박경립의 발문, 조영 장인 성로의 증별시는 각각 행초로 하나의 작품을 이룬 시서화첩이다. 이는 김주와 조영, 두 사람의 만남과 망년지교, 골육의 정을 문학과 예술로 표출한 시서화첩으로 의미가 크다. 이들의 문학과 예술의 조화는 시서화의 역동적인 융합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이에 대한 연구는 황수정, 앞의 논문, 168~178면에서 상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제군산이우도>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하기로 한다.



<도판4> 박경림의 <군산이우도첩> 부분/권필의 <재군산이우도> 부분/건국대박물관 사진 제공(2017.08.31)

한 기록이다. 난리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지음과의 교감은 위안과 위로가 되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현 시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시각에서 봤을 때도 급박하고 절박한 시기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곧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두 사람의 만남과 우정, 그리고 그 기록의 의미는 지대하다.

『군산이우도첩』이 만들어진 시대 배경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는 임진왜란의 상황이었다. 임진왜란은 선조(宣祖) 25년(1592) 임진년(壬辰年)에서 선조 30년(1597) 정유년(丁酉年) 재란 그리고 선조 31년(1598) 무술년(戊戌年) 11월까지 7년간 약 80개월에 걸친 긴 전란이었다.<sup>24)</sup> 이러한 전란의 위중한

2) 전란 속 만남,知音의 기록

친구는 옛사람의 삶과 예술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어떤 친구들과 어떻게 어울려 지내는가? 그것은 삶이 지닌 빛깔과 예술의 개성까지 선명하게 드러내 보인다.<sup>23)</sup> 『군산이우도첩』은 국가적 재난인 전란이라는 급박함 속에서의 만남에 대



<도판5> 군산 선유도 고지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도판 제공(2020.10.23)

23) 안대회,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34면.

24) 군산문화원, 홈페이지, 군산의 역사부분 참조, 일찍이 군산 지역은 백제의 금강시대부터 8.15광복 때까지 기나긴 세월동안 일본인(日本人)들과의 항쟁사를 가장 많이 간직한



<도판6> 군산 선유도/필자 촬영(2020.10.02)



<도판7> 군산이우도 부분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뿔뿔이 고향을 떠나 낯모르는 곳으로 피신해야 했던 때였다. 조영은 기호지방에서, 김주는 영남에서 고군산도[현재 군산 선유도]<sup>25)</sup>

곳이다. 군산문화원 홈페이지, 문화와 역사, 왜구(倭寇)와의 항쟁(抗爭) 진포대첩(鎭浦大捷) 부분 참조. 역사임진왜란과 군산부분 참조 조선 건국 200년인 평화(平和)로운 강산(江山)에 413년 전 사나운 침략자 선발대군이 4월 14일 부산(釜山)에 상륙(上陸)하여 부산진 동래성을 짓밟고 16일에는 밀양(密陽)까지 진격해 왔다. 18일에는 제2군이 경주, 영천, 군위까지, 19일에는 제3군이 김해, 창원까지, 침략자 3개 군은 서울을 향하여 세 갈래 길로 진격했는데 조령, 죽령, 추풍령의 3대 천연요새는 충성 없이 뚫리었다. 왜군상륙(倭軍上陸) 급보를 받은 조정은 17일 이익(李鎰) 장군에게 침략자 격퇴를 명했으나 상주에서 패하고 전사했다.

- 25) 필자는 『군산이우도첩』의 중심 지역인 전북 군산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하여 조영의 〈군산이우도〉 그림의 근거지였던 군산 선유도의 면모와 그림 속 장소를 탐색하였다. 1차 답사는 2017년 10월초에 방문하여 그림의 장소가 되었을 법한 곳을 탐색하였다. 당시 선유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현지인의 안내로 그림의 장소처럼 보이는 곳을 찾아보기도 하였다. 자신의 어렸을 적 놀던 넓적 바위가 있던 곳과 흡사하다는 말과 함께 안내한 곳은 현재는 짚라인이 설치된 곳이었다. 다시 필자는 주변을 탐색하던 중에 선유도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앞산의 정경이 그림의 산 모양과 흡사하여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1차 답사 때는 선유도 다리가 미처 개통하지 않아서 차를 주변에 세우고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길을 한참을 걸어 들어가느라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여 선유도 안쪽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2차 답사를 계획했었다. 2차 답사는 올해 2020년 8월, 3~4분과 함께 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8월의 태풍과 당시 코로나19 확장세로 어쩔 수 없이 연기하였다가 10월 2일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다녀왔다. 현지 선유도 해설사에 의하면, 선유도는 3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선유도 초입의 옥돌해변 쪽이 선유1구, 선유봉 쪽이 선유2구,

로 향했던 것이다.

군산 선유도는 일찍이 『경종실록』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호남의 해로에서 해남 우수영이 가장 요해처이고 이곳을 지나면 임자도가 요해처이고 여기에서 칠산 앞바다를 지나면 고군산선유도가 또 하나의 요해처이다”<sup>26)</sup> 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군산은 군사적으로도 주요 항구였다고 볼 수 있다.

조영은 임진왜란에 장인인 성로와 함께 당시 고군산도(현재 군산 선유도)로 피란하였다. 같은 장소로 피란한 김주를 만나서 의기투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두 사람은 깊은 정회를 나누며 망년지교, 지음의 인연을 맺었다. 5년간 고군산도에 머물다가 정유재란이 시작되자 다시 김주는 조영, 성로와 함께 배를 타고 강화로 피난의 길에 오르고자 하였다.<sup>27)</sup> 이때 다시 한 번 두 집안의 골육(骨肉)의 절실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허목(1595~1682)의 『군산이우도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적(賊)에게 호남이 함락되자 다시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갈 때에 김주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이 말하기를, “뱃길은 임신한 부녀자를 꺼리니, 내려야 한다.” 하였다. 공[조영]이 말하기를, “이렇게 꺾박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다. 의리로 보아 버리고 갈 수 없다.” 하고, 함께 내리려 하니, 성 상사가 말하기를, “배에 있는 많은 사람이 어찌 부인 한 사람

---

망주봉 쪽이 선유3구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 말에 의하면, 1차 답사 때는 주로 선유2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는 망주봉과 대봉이 있는 선유3구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 선유3구는 선유도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으로 망주봉과 대봉을 함께한 작은 산들이 감싼 곳이다. 1차 답사 때 촬영하였던 장소를 다시 최근접하여 탐문하고 재촬영하여 <군산이우도> 그림에 가장 근접한 곳을 추정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동양화는 주로 관념화로 보기 때문에 실경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산이우도> 그림은 실제 만남과 우정에 대한 기록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필자의 두 차례 현지 답사와 조사 또한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6) 군산시, 『群山 島嶼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018, 85면.

27)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三, 行狀 참조.

때문에 다 죽을 리가 있겠는가.” 하며 멈추게 하였다. 이리하여 김주의 가족이 온전할 수 있었다.<sup>28)</sup>

위 글을 통해서 보면 김주와 조영은 지음의 단계에서 골육의 관계로 진전됨을 알 수 있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목숨까지 함께 하고자 하였던 조영의 결단과 의리가 잘 드러난다. 친우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맞서며 극복하고자 하였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재난의 경험들은 두 사람의 우의의 깊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두 집안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壬辰我作江南遊	임진년에 내가 강남을 유람할 때
扁舟獨繫湘江煙	편주를 홀로 안개 자욱한 상강에 매어 두었네.
君亦飄零自嶺嶠	그대 역시 영남에서 떠돌다가
匹馬行色群山前	필마로 나그네 되어 군산 앞에 이르렀네.
邂逅一見之	서로 만나 한 번 보고
情事相洄沿	사정을 서로 다 이야기했네.
自此許知己	이로부터 친구가 되기로 하고
托隣孤城邊	외로운 성 곁에 이웃하여 살았네.
日日同榻臥	날마다 한 침상에 누웠고
夜夜同衾眠	밤마다 한 이불에 잤네.
得酒同把杯	술을 얻으면 함께 술잔을 들었고
騎馬同揮鞭	말을 탈 때 같이 채찍을 휘둘렀네.
自君之相遇	그대를 만나고부터는
緩我客裏愁腸煎	나의 객지에서 끓어오르던 근심도 누그러졌네.
自君之相遇	그대를 만나고부터는
洗我心塵垢填	나의 마음속에 쌓였던 티끌도 씻기었네.
忘形復忘齒	신분도 잊고 또 나이도 잊고
懷抱何依然	회포를 터놓고 얼마나 의지했던가. <sup>29)</sup>

28) 허목, 『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제25권, 〈漢陽趙公節婦成氏雙墓銘〉, “……及賊陷湖南 復浮海而北 轉妻方娠 舟中人曰 舟行忌孕婦 當下之 公曰 此迫之令死也 義不相棄 欲與俱下 成上舍曰 舟中多人 豈以一婦人故俱死也 止之 轉家得全 ……”

.....

이 시는 조영의 제화시인 〈군산이우도시〉 중 앞부분에 해당한다. 제화시는 그림의 화경(畵境)과 화의(畵意)를 시로써 재현한 문학이다.<sup>30)</sup> 따라서 조영은 이 시에서 두 사람의 만남에서부터 심금을 터놓게 되는 우정의 관계, 그리고 객수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되었음이 시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번 보고 서로 정을 나누고 흥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림으로는 모두 드러내기 힘든 화의를 시정(詩情)에 담아 형상화시킨 것이다. 두 사람이 잠을 함께 자기도 하고 술로 회포를 나누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또한 조영은 건디기 힘든 객수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김주를 만나고부터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 근심을 해소할 수 있었음을 그린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의 티끌이나 번민을 김주와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씻어낼 수 있었음을 드러냈다. 망형지교(忘形之交)는 신분이나 지위에 구애되지 않는 만남을 의미하고 망년지교(忘年之交)는 나이를 떠나 사귀는 것을 말한다. 조영은 ‘망형부망치(忘形復忘齒)’로 표현하여 모든 외형적인 것에서 벗어나 마음으로 나누어 위안이 되는 관계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두 사람은 전란이라는 국가적 재난의 시대 만남을 이루었다. 온 백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혼미한 상황 속, 피란의 길에서 만난 것이다. 그저 스쳐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품모와 학식을 알아보고 서로를 인정하였다. 두 사람은 간담상조(肝膽相照)의 정(情)을 나누며 지음(知音)의 인연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이후에 정유재란 발발로 또 한 번 절체절명의 피란길에 나서게 되었다. 거기서 김주의 아내가 당시 같은 배에 올랐던 사람들로부터 임신한 사람은 배에 타면 안 된다는 배격을 당하였다. 그 위기에서 목숨까지 함께하려고

29) 조영, 『雲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 『군산이우도첩』의 〈군산이우도시〉 중에서

30) 조영은 위 〈군산이우도시〉에서 자신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범장처럼 죽어도 영원히 잊지 말자고, 송죽을 그린 까닭은 왕공처럼 궁달하여도 마음 변하지 말자는 뜻을 담았다고 묘사한 바 있다. 황수정의 앞의 논문, 164~165면에서 자세히 참조할 수 있다.

하였던 진정한 우의를 보여준 조영과 성로의 대처로 김주 집안이 온전할 수 있었다. 이로써 두 집안의 관계는 후손까지도 골육(骨肉)의 정으로 이어졌다<sup>31)</sup>는 기록을 남겼다.

〈군산이우도〉 그림은 조선 중기 이전의 작품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우리의 상황, 특히 임진왜란 당시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강조<sup>32)</sup>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물론 필자가 앞 장에서 밝힌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시기는 〈군산이우도〉를 완성하고 십여 년이 넘는 세월을 두고 완성된 것이나, 조영의 그림과 시, 김주의 서 그리고 박경립의 발문은 모두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사이에 첩(帖)으로 완성한 것이다.

『군산이우도첩』은 피란 중의 만남으로 이별을 예견하고 나중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되어도 서로를 잊지 말자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그런데 조영의 요절<sup>35)</sup>세, 1606]로 인하여 두 사람은 너무나 빨리 영원한 이별을 맞게 되었다. 김주는 실제로 조영 사후에 그에 대한 만시(挽詩)에서 “군산이우첩은 호해 10년의 정이네[群山二友帖, 湖海十年情].”<sup>33)</sup>라고 읊었다. 또한 “고인의 얼굴은 지금 어느 곳에 있나, 수적은 분명 벽에 걸려 있네[故人顏面今何在, 手蹟分明掛壁間].”<sup>34)</sup>라고 하며 조영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냈다.

이처럼 전란의 시기 두려움과 급박함 속에서 마음으로 의지하며 심금을 터놓을 수 있는 망년지교, 지음의 관계는 두 사람에게 모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위안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절체절명의 시기에 목숨까지도 함께 하고자 하였던 이들의 관계는 두 집안은 결속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조영 사후에도 『군산이우도첩』은 당대 문사(文士)들의 기록과 함께 당시의 소중한 만남, 지음간의 위안의 기록으로 남았다.

31) 허목, 『미수기언(眉叟記言) 별집』 제25권, 〈漢陽趙公節婦成氏雙墓銘〉에서 참조할 수 있다.

32) 김상엽, 『기억의 풍경』, 쿠북, 2016, 308면.

33)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一, 〈挽趙士安嶽〉 중에서

34)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一, 〈題趙士安水墨圖〉 중에서

## 3) 지식인 공동의 합작물

이 『군산이우도첩』은 앞에서 기술했듯이, 조영의 그림을 중심으로 김주의 서문, 조영의 제화시, 박경립의 발문, 권필의 제화시와 증별시, 그리고 성로의 증별시 2편이 한 권의 책자에 어우러진 지식인 공동 합작물이다.<sup>35)</sup> 이는 각 작품의 완성 시기 순서대로 묶인 것이다. 『군산이우도첩』의 시서제발문은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그 제작경위부터 과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일 뿐만 아니라 공동 성과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 시대의 화가이자 시인이고 학자인 인물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같은 주제로 자신의 작품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김주의 『운암선생문집』 행적(行蹟)에도 조영의 그림과 시에 대한 실력을 칭송하면서 당시 문장의 거공들이 그림의 말미에 글을 기록하고 시를 읊었다<sup>36)</sup>는 기록이 있다. 다음 표로 <군산이우도> 관련 문학 작품을 문집 및 소장처, 그리고 내용 요약을 중심으로 그 공동 작품집의 출처를 기능해보고자 한다.

〈표2〉 &lt;군산이우도&gt; 관련 문학 작품 목록

번호	문집	작품 유형	제목/형식	작가	내용 요약	서체	소장 처
1	雲巖先生文集	서문	羣山二友圖 序	金轅	조영에게 그림 그릴 것을	楷書	문 집 : 국 립

35) 『군산이우도첩』 표지는 羣山二友圖 并序与詩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군산이우도첩』의 저자 목록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써서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김주의 호 雲巖이 雲石으로, 石田 成輅의 성이 權으로 오기되어 있음을 밝힌다. 김주의 『雲巖先生文集』에는 卷之二에 김주의 <군산이우도서>가 배치되었고, 『雲巖先生文集』 卷之四, 附錄에 羣山二友圖帖(圖見本帖序見原集)이라는 제목 아래 조영의 <군산이우도시>를 시작으로 권필의 <제군산이우도>, 박경립의 <군산이우도발>, 권필의 <송금진사지원남귀성주(병인)>, 미수 허목의 <군산이우도기> 순으로 배치되어있다.

36) 김주, 『雲巖先生文集』 卷之三, <行蹟>, “…趙以善畫能詩名爲畫二友 相對把酒吟詩狀名曰羣山二友圖 當時 文章鉅公 多有記文吟詠於圖末…”

	卷之二				제안한 배경과 군산이우도가 만들어진 내력 소개		중앙도서관/帖건국대 박물관
2	雲巖先生文集卷之四附錄	제화시	群山二友圖詩 (長篇古詩)	趙嶸	본인이 그린 군산이우도 그림의 의미와 뜻을 형상화	草書	”
3	雲巖先生文集卷之四附錄 / 石洲集	제화시	題群山二友圖 (七言古詩)	權鞞	김주의 부탁으로 김주, 조영 두 사람의 우의를 드러낸 제화시	行草	”
4	雲巖先生文集卷之四附錄	발문	群山二友圖跋	朴敬立	조영의 부탁으로 군산이우도 발문 기록	行草	”
5	雲巖先生文集卷之四附錄 / 石洲集卷之一	증별시	送金進士鞞南歸星州并引 (五言古詩)	權鞞	김주가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하며 쓴 증별시	行草	”
6	雲巖先生文集卷之四附錄	증별시	送南翁還鄉 (五言絕句) 臨江話別 (七言絕句)	成輅	김주가 고향으로 떠나가서 이별하게 됨을 아쉬워함	行草	”
7	眉叟記言	기문	群山二友圖記	許穆	조영의 아들 成後의 부탁		한국고전

					으로 작성한 기문		번역 원
8	石洲集 卷之三	산수시	爲作山齋十 事成進士輅 (五言律詩, 10首)	權鞞	조영의 장인 성로를 위해 지은 시		한국 고전 번역 원
9	眉叟記 言別집 제25권	묘갈문	漢陽趙公節 婦成氏雙墓 銘	許穆	조영과 그의 부인 성씨의 쌍묘명		한국 고전 번역 원
10	雲巖先 生文集 卷之一	만시	挽趙士安嶠 (五言排律)	金軼	조영에 대한 만시		국립 중앙 도서관
11	"	제화시	題趙士安水 墨圖 (七言絕句)	金軼	조영의 그림 을 보면서 그 를 애달프게 그리워함.		"
12	石洲別 集卷之 一	차운시	戲次成進士 輅 見示韻 (五言絕句)	權鞞	장난삼아 성 진사(成進士) 로(輅)가 보 여 준 시에 차 운하다		한국 고전 번역 원

위 표를 보면, <군산이우도> 관련 전체의 시서발문과 기문을 확인할 수 있다. 1번부터 6번 항목 작품은 실제 본첩(本帖)인 『군산이우도첩』을 구성한 작품들이다. 7번 항목인 허목의 <군산이우도기>는 본첩인 『군산이우도첩』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김주의 『운암선생문집』, 군산이우도첩 항목에는 함께 실려 있다. 그리고 위 표 8~12번 항목의 작품들은 김주와 조영을 중심으로 교류와 종유하였던 문사들의 산수시, 만시, 제화시, 차운시이다. 이 작품들은 당시 두 사람과의 교류로 『군산이우도첩』에 작품을 실은 인물들이 조영 사후에도

그 인연을 지속하면서 주고받은 작품들이다. 이를 통해 김주와 조영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의 소통과 교류, 삶과 그 멋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군산이우도첩』은 두 사람의 만남과 우정의 기록이지만, 당시 공유하였던 사람들과의 소통의 삶, 우정의 진정성이 담긴 공동의 합작물로서도 의미가 있다. 먼저 조영의 제화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圖乎圖乎	그림이여, 그림이여
汝之作也非偶爾	그대 그린 그림 우연이 아니라네.
我今持汝誓	내가 지금 그대의 다짐을 믿으며
暮天山河有時變	저물녘 산하가 때때로 변하는 것은 그랬다네.
此心終難鏹	이내 마음은 끝내 새기기 어려워
此心兮此心兮	이 마음이여, 이 마음이여.
非我批君兮	내가 그대를 평가하지 않으면
誰與相全	누가 그대를 온전히 평하리오.
君乎君乎	그대여, 그대여
君亦有此心	그대 역시 이 마음 있으리니.
永與此圖	길이 이 그림과 함께
平生終始焉	평생토록 함께 합시다 그려.37)

이 시는 조영의 제화시 〈군산이우도시〉 45구 중에서 뒷부분 12구이다. 조영은 자신의 시의 첫 시작을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계기를 드러내며, 서로간의 심금을 터놓는 친밀감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극도로 혼란의 시기에 객수를 달랠 수 있어 위안이 되는 관계임을 진솔하게 묘사하였다.<sup>38)</sup> 시의 중반부에는 본인 그림의 화경(畵境)에 화의(畵意)를 담아 형상화하였다. 여기에 또한 조영은 그림에서 김주가 “책을 잡은 까닭은, 그대가 학문 좋아하고 선현들을 생각하기에, 술잔을 든 까닭은, 내가 술을 좋아해 냇물 들어키듯 하기 때문이라네[所以把

37) 조영, 『군산이우도첩』, 〈군산이우도시〉 중에서

38) 앞 장 12면 참조.

書卷, 君也好學思前賢. 所以把酒杯, 吾也嗜酒如吸川.”라고 묘사하기도 하였다. 두 사람, 인물의 형상화를 본인들의 품모와 학덕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다음은 김주의 <군산이우도서> 말미의 내용이다.

각각 그 그림을 소매 속에 넣어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 책상위에다 펼쳐두고 실제 모습을 대하는 것처럼 감상한다면, 가만히 있는 구름과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서로 생각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지 않은가? 이것이 내가 (사안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까닭이다.<sup>39)</sup>

이처럼 영원한 우정의 다짐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그림을 펼쳐두고 실제 모습 본 듯이 대하자는 약속과 맹세로 마무리 하였다. 조영 또한 자신의 시 <군산이우도시>에서 자신이 <군산이우도>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김주가 표출한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우정에 대한 맹세, 그리고 전란 후에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잘 보지 못하더라도 그림에 새긴 모습을 보며 잊지 말자는 약속, 이러한 다짐과 약속은 조영 자신이 산하의 모습에 담아 그렸으나, 그 그림 안에 마음까지 새겨놓기가 어려웠다고 묘사하였다. 다만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주며 그림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픈 마음을 시정(詩情)으로 드러냈다. 이처럼 김주와 조영은 진솔한 우의와 절실한 믿음을 문학적으로도 승화시켰다.

다음은 당대 850여 수의 한시를 남기고, 조선조 대표시인으로 평가받는 권필의 시를<sup>40)</sup> 통해 공동 창작물의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권필의 작품 참여는 『군산이우도첩』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권필은 <군산이우도>의 제화시인 <제군산이우도>에서 26구의 칠언고시(七言古詩)로 김주와 조영에 대한 시적 형상화를 표하였다.<sup>41)</sup> 이처럼 그의 제화시 <제군산이우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39) 김주, 『군산이우도』, <군산이우도시> “各袖歸鄉, 展玩案上, 而若相對乎眞面目, 則不猶愈於望停雲見明月而相思者乎. 此余之所以請爲圖也.”

40) 권필의 제화시에 관한 연구로는 황수정의 『석주 권필 제화시(題畫詩)의 형상화 방식』(『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311~340면)을 참조할 수 있다.

41) <제군산이우도> 작품에서 권필은 서사적 기법으로 먼저 김주와 조영의 품모 묘사로

연구된 바가 있다. 여기서는 권필이 김주와 이별을 앞두고 보낸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吾侯不羈士 그대는 구속받지 않는 선비로  
 乃是東南美 바로 동남의 아름다운 인물이었네.  
 艱關避兵亂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병란을 피하여  
 輾轉西海涘 서해 바닷가를 전전했네.  
 爲人古心貌 위인이 옛 사람의 마음과 모습이며  
 文藻蓋餘事 문장은 대체로 여가로 하는 것이었네.  
 飢寒走不暇 굶주림과 추위에 다니느라 겨를이 없었으나  
 得喪無愠喜 얻고 잃음에 화내거나 기뻐함이 없었네.

.....

平生趙士安 평소 사귀었던 조사안은  
 零落歸蒿里 죽어 무덤으로 가버렸네.  
 逝者不可回 떠나간 사람은 돌아올 수 없으니  
 萬世長已矣 영원토록 길이 만나지 못하네.  
 子又決然去 그대마저 또 결연히 떠나가니  
 後會焉足持 다음 기회를 어찌 기약하겠는가?  
 川原莽回互 강물과 들판이 아득히 휘감아 도니  
 相視各垂淚 서로 보며 각기 눈물을 드리우네.<sup>42)</sup>

이 작품은 권필의 오언고시 중 일부이다. 이 작품에서 권필은 김주와의 인연과 함께 <제군산이우도>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기도 하였다. ‘오후(吾侯)’는 사대부들 사이에 서로 높이어 부르는 말로 김주를 가리킨다. ‘불기(不羈)’는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는 성품을 뜻하는 것으로 김주의 강개한 기상을 묘사한

시작하여 두 사람의 만남의 과정을 형상화 하였고, 화경에 대한 묘사로 두 사람의 친밀성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사람의 우의가 영원할 것을 염원하였다. 끝으로 그림에 대한 제화시의 필요성을 묘사하였다. 이로써 권필은 <제군산이우도>에서 제화 시로써 화경과 화의를 동시에 잘 드러냈음을 밝힌 바 있다. 황수정, 『<제군산이우도>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68면 참조.

42) 권필, 『石洲集』 卷之一, <送金進士輾南歸星州>, 『群山二友圖帖』.

것이다.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올곧은 선비의 풍모를 지닌 김주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임란 당시의 어려움과 피란 상황의 고충을 드러내고 있다. 그 속에서도 김주는 크게 흔들림이 없는 선비의 풍모를 지켰음을 묘사하였다. 조영 사후에 김주도 고향인 성주로 돌아가게 되어 권필은 이별을 앞두고 그와의 인연을 되새기고 피란 생활의 고단함을 드러냈다.

권필은 이 시에서도 김주와 조영의 특별했던 만남을 묘사하고 있다. 서로 영원할 것을 다짐했었는데, 홀연히 먼저 세상을 떠난 조영을 떠올리며 그리움을 담고 있다. 그리고 만남을 다짐하며 제작되었던 『군산이우도첩』은 다시 이별을 노래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 조영의 장인인 성로 또한 김주를 떠나보내며 만날 수 없음을 표출하였다. 성로는 『군산이우도첩』 자신의 시 〈남옹 김지원이 고향에 돌아가다(南翁金志遠還鄉)〉에서 “백발에 가을날 슬픈데, 이별에 임하니 더욱 애끓네[白髮悲秋日 臨分更斷腸].”라고 하며 애절한 이별의 슬픔을 시정으로 표출하였다.

『군산이우도첩』은 두 사람의 관계로만 머물지 않았다. 조영 사후에도 그 인연을 지속하면서 주고받은 작품들을 담아냈다. 이처럼 김주와 조영의 만남은 두 사람의 만남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의 소통과 교류, 삶의 진정성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군산이우도첩』은 두 사람의 만남과 우정의 기록이지만, 당시 공유하였던 사람들과의 삶과 소통, 그 우정의 진정성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군산이우도첩』은 〈군산이우도〉 그림과 김주의 〈군산이우도서〉 중심으로 조영과 권필의 제화시를 통해 김주와 조영의 막연한 지음의 우의가 진솔하게 형상화된 것이다. 또한 권필의 증별시와 성로의 증별시를 통해 그리움과 이별의 애절함까지 혼연일체로 어우러진 당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지식인들의 가장 인간적이고 진솔한 면모가 드러난 공동 합작물임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작품집은 임진왜란의 시기인 1593년 피란의 장소인 고군산도(지금의 군산 선유도)에서 우정을 나누었던 기록이다. 두 선비가 만나서 지음(知音)의 망년지교(忘年之交)로 교류하였던 내용이다. 조선 중기 화가 조영(趙嶸)과 학자 김주(金鑣)의 우정과 삶을 기록한 시서화첩이다. <군산이우도>라는 조영의 그림을 중심으로 그의 제화시, 김주의 서문(序文), 권필의 제화시와 증별시, 박경립의 발문(跋文), 성로의 시 2편, 모두 18면으로 구성되었다.

『군산이우도첩』은 조선 중기 시서화첩으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그림과 시, 서체를 고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제화시와 그림이 함께 존재하며 시서화의 예술미와 문학성을 갖춘 작품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군산이우도첩』 연구로는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그 문예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특히 『군산이우도첩』은 두 인물의 작품을 중심으로 여러 문사(文士)의 작품이 한데 어우러진 시서화첩이라는 특징이 있다. 제작 경위를 통해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과정과 그 제작 시기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또한 두 인물과 공유하며 소통하였던 문사들과의 작품을 통해 그들의 우의와 만남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산이우도첩』의 문예적 의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첫째, 『군산이우도첩』은 시서화의 융합과 그 어울림의 작품집으로 문예적 가치를 선도한다. 『군산이우도첩』의 중심인 화가 조영의 <군산이우도>는 절제와 여백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그의 제화시는 활달한 기상과 분방한 필법을 구사한 초서체이다. 학자 김주의 서문은 해서체로, 당대 최고 시인인 권필 제화시, 그리고 두 사람의 친우인 박경립의 발문, 조영 장인 성로의 증별시는 각각 행초로 하나의 작품을 이룬 시서화첩이다. 이는 김주와 조영, 두 사람의 만남과 망년지교, 골육의 정을 문학과 예술로 표출한 시서화첩으로 의미가

크다. 이들의 문학과 예술의 조화는 시서화의 역동적인 융합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산이우도첩』은 전란 속에서의 만남, 지음(知音)의 기록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란의 시기 두려움과 급박함 속에서 마음으로 의지하며 심금을 터놓을 수 있는 망년지교, 지음의 관계는 두 사람에게 모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위안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절체절명의 피란 시에 목숨까지도 함께 하고자 하면서 두 집안은 골육의 관계로 그 결속을 이어갈 수 있었다. 『군산이우도첩』은 조영의 사후에도 당대인들의 기록과 함께 당시의 소중한 만남, 지음간의 위안의 기록으로 남았다.

셋째, 『군산이우도첩』은 당대 지식인의 공동 합작물이다. 본 연구의 진행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군산이우도첩』은 두 사람의 관계로만 머물지 않았다. 조영 사후에도 그 인연을 지속하면서 주고받은 작품들을 담아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김주와 조영의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당대 지식인의 소통과 교류, 삶의 진솔함을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군산이우도첩』은 두 사람의 만남과 우정을 기록한 것이지만, 당시 공유하였던 사람들과의 소통, 그 우정의 진정성이 잘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군산이우도첩』은 <군산이우도> 그림과 김주의 <군산이우도서>를 중심으로 조영과 권필의 제화시를 통해 두 사람의 우의가 진솔하게 형상화된 것이다. 또한 권필의 증별시와 성로의 증별시를 통해 그리움과 이별의 애절함까지 담아낸 찡찡한 시대 지식인들의 교류 일면을 알 수 있는 시서화첩이다.

■ 주제어 : 군산이우도첩, 조영, 김주, 그림, 제화시, 시서화, 지음(知音)

## 참고문헌

- 권 필, 『석주집』, 한국문집총간 75, 한국고전번역원.
- 장 유, 『계곡집』, 한국문집총간 92, 한국고전번역원.
- 김 주, 『운암선생문집』 4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허 목, 『미수기언』, 한국고전번역원.
- 군산시, 『群山 島嶼誌』,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2018.
- 김상엽, 『기억의 풍경』, 쿠북, 2016.
- 신현경, 「시서화 삼절의 현대적 변용을 위한 서설」, 『東洋文化研究』 第6輯, 영산대 동양문화연구원, 2010, 81-113면.
- 정혜린, 「조선 중기 회화관 연구: 절파산수화(浙派山水畫)와 시화합일(詩畫合一)의 관계를 중심으로」, 『人文論叢』 62,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9, 169-202면.
- 조규희, 「조선중기 지식인들의 회화관(繪畫觀)」, 『儒敎文化研究』 18,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2011, 181-209면.
- 안대회, 『한국학, 그림을 그리다』, 태학사, 2013.
- 임희숙, 「조선 중기 문인들의 회화관 연구」, 명지대 박사학위논문, 2017.
- 황수정, 「석주 권필 제화시(題畫詩)의 형상화 방식」, 『한국시가문화연구』 40, 한국시가문화학회, 2017, 311-340면
- \_\_\_\_\_, 「〈題群山二友圖〉의 구조와 특징」, 『한국사상과 문화』 90, 한국사상문화학회, 2017, 155-184면.

## 【Abstract】

## The Details and Meaning of Making 『Gunsan-leewoo-dochub』

Hwang, Su-jeong

This study speculated on the details and meaning of making 『Gunsan-leewoo-dochub』. This literary work recorded friendship in Gogunsando(Sunyodo, Gunsan now) as a shelter during the Imjinwaeran of 1593. It expressed friendship with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between two scholars who were in different ages. They were Jo Young, an artist of the middle Joseon period and Kim Joo, a scholar. It consisted of a total of 18 pages centering on <Gunsan-leewoo-do>, a drawing by Jo Young: Jo Young's Jehwasi(Sino-Korean Poetry about Painting), Kim Joo's preface, Kwon Pil's Jehwasi and Jeungbyolsi, Park Gyeong-Rip's epilogue, and 2 pieces of poetry by Seongro. It contains both Jehwasi and drawing and is full of artistic and literary beauty of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This is the first study on the 『Gunsan-leewoo-dochub』. Its making process and period were drawn from the making details. Also, this study found the friendship was true through works by literary people as friends. Therefore, the literary meaning of the 『Gunsan-leewoo-dochub』 was analysed in three aspects:

First, the 『Gunsan-leewoo-dochub』 was a leading literary work containing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It has great meaning in that it expressed true friendship between Kim Joo and Jo Young beyond ages and kindred with art. Second, it had meaning in that it recorded friendship during the war. They opened their hearts each other and depended on each other in fearful and pressing situation of war, through which they overcame the hard period. Third, it was

jointly made by intellectuals of that time. After Jo Young died, they exchanged literary works while maintaining relationships. Thus, through the 『Gunsan-leewoo-dochub』, we can understand that active communication and true friendship among intellectuals of that period existed beyond friendship only between Kim Joo and Jo Young. The 『Gunsan-leewoo-dochub』 is a work containing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and shows that there were true communication and friendship among people who exchanged although it recorded friendship between the two persons.

【Key words】 : 『Gunsan-leewoo-dochub』 Jo Young, Kim Joo, drawing, Jehwasi, poetry, calligraphy and drawing, Jieum (true friend)

---

---

## 황수정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한문학과 강사

(57774)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369, 202동 502호

전자우편: 56260616@hanmail.net

---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15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2월 8일에 심사 완료되어 12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